

서재필 언론인상에 광주MBC 김낙곤 사장

호남소의 극복 일관된 저널리즘 정신·언론인 윤리 실천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 언론인상 선정위원회는 제5회 수상자로 김낙곤(55)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곤 사장은 1995년 광주문화방송 수습기자로 입사해 취재부장, 보도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농민문제와 전남도정,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깊이 있는 보도를 해왔다. 선정위는 호남소의 극복이라는

일관된 저널리즘 정신을 실천해 온 점, 언론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지켜 온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김사장은 2008년 전남도가 추진한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의 문체부를 심층 취재한 '위험한 질주 전남 F1' 2부작으로 35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1998년엔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유통업자들만 배분되는 현실

을 고발한 '농안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보도로, 2006년엔 대륙철도와 중동국가들의 미래전략이 호남에 시사하는 바를 취재한 2부작 다큐멘터리 '길'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토론 프로 '김낙곤



의 시사 분석'을 맡아 2년 동안 진행했다.

김 사장은 광주과학교, 중앙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해부터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맡고 있다.

서재필 언론인상은 송재 서재필 선생의 자주 자강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제정했으며 광주전남 중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1월 7일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조일상 기자

포토뉴스



광주새마을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3700만원 상당 차량 후원

광주시는 21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엔젤하우스에서 광주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물품은 카니발 차량(3700만원 상당)으로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병원 등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일상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

피해회복·인권 보호 위해 2000만원 전달...11년째 후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21일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범죄 피해

청에서 열린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년행사에서 진행했다.

박치용 기아 오토랜드 광주 경영지원실장은 이수권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보선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 2000만원의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개원했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 중인 그 피해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서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우수기관 선정...광주 유일

서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2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의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개인별 건강 및 영양상태, 신체활동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최근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의 중요성이 날이 부각되면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지자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시행됐다.

서구는 ▲주민 체력측정 ▲운동 프로그램 ▲금연사업 ▲견기사업 등 부서별 시행하는 다양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수상 10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타부서 및 기관과 지속 협력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암댐노인복지관,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들의 송년행사

순천시 송주읍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K-water 나눔복지재단 주암댐노인복지관에서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20일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 외롭게 지낼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마련했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와 공연 열 연주로 한층 분위기를 더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주여성, 교육부장관상 등 공모전 휩쓸어

HIFIVE UCC 교육부장관상·창업놀이터 대상·우수상 등



광주여성창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참여한 각종 공모전에서 연달아 수상했다.

21일 광주여성상에 따르면 '제6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HIFIVE UCC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했다. 2학년 안은비, 이은비, 위시현, 류경빈 학생이 팀을 이뤄 출품한 '너와 나, 우리 모두 찬란한 미래를 향해'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중등직업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1차 방문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기쁜 소식은 계속 이어졌다. 광주여성상 학생들은 'JA코리아'에서 주관한 '창업놀이터 페스티벌 2022'에 참가해 학생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삼성그룹의 금융 6개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벤처투자)와 함께 하는 'JA코리아'에서 주관했다.

실제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 생산, 판매하는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여성상에서는 발표 부문에서 대상1팀(임취위원장-조은별, 박은정), 우수상1팀(미녀삼총사-김환희, 안은비, 정여원이 수상했다. 대상과 최우수상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2학년 조은별 학생은 "1년 동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꼭 목표하는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기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2022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전국 250여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의 문

지역 기후·분리배출·건강 및 안전 문제 해결 기여 공로

제 해결에 앞장선 의정활동 내용에 관해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 등 총 12명을 선정했다.

윤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통틀어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한 수상자로 제8대, 제9대 광산구의원으로 연임하면서 지역의 기후문제와 그린뉴딜,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일반주택지역 내 아파트식 분리배출시설 설치 제안', '분리배출 정책 개선' 등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제언해 왔으며,

광산구의회 그린뉴딜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정책 및 그린뉴딜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도박·인터넷·마약 등 각종 중독문제를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주목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개선,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전문성 고취 등에 힘써 지역의 건강과 안전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구민 모두가 동참해 광산구가 친환경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인사**
- 광주 광산구**
- ◇4급승진 ▲행정지원과서상현
 - ◇5급승진 ▲기획조정실 채동훈 ▲건강증진과 김은경 ▲건설과 박영오

20년째 봉사 '보금자리' 지역사회 귀감

광양희망도서관, 보금자리 주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성황



20년째 어린이를 위한 무료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광양희망도서관 '보금자리' 봉사팀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3년 동화연극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모여 결성한 '보금자리'는 31명의 단원이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매일 동극 공연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오랜 공연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성 극단 못지않은 실력을 인정받

고 있다. 지난 17일 '보금자리'가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진행한 희망도서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150여 명이 참여해 호응 속에 2022년 공연 일정이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금자리' 외에도 광양시에서 활동 중인 '뾰대! 무지개', '광양시청 미술동호회' 봉사팀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광양·조순의 기자

'강진 산타' 쌍둥이 가정 깜짝 방문

전국 최고 규모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미래 세대 위한 투자



지난 15일, 강진군이 강진읍에 거주하는 김지훈 씨 맥을 방문해 성탄을 축하하고, 쌍둥이 육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부를 격려했다.

김지훈, 이다현 부부는 지난 4월 김지훈, 김이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고 규모로 지급하는 강진군 육아수당의 효과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 아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성탄을 앞두고 강진군 육아

수당 시행과 선물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진군청 관계자들이 산타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강진군은 지난 10월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수당 지급으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육아수당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까지 최대 84개월 간 지급한다. /강진·한홍수 기자

청암대 안경광학과, 특수학교 직업체험 제공

덕수학교 학생들 검안실습 체험·진로 연수 진행



청암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전남의 특수학교인 덕수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경사 직업체험을 위한 검안실습 체험 및 진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안경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지금까지의 제한된 직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도전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안경사 직무와 관련된 실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정보를 알게 됐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됐다.

청암대 박성종 안경광학과장은 "미래 유망직종인 안경사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차별없이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와 협업체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